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신명 18,15-20

[화답송] 시편 95(94),1-2.6-7 ㄱㄴㄷ.7ㄹ-9(㉗ㄹ과 8ㄴ)

(후렴) 오 늘 주 님 목 소 리 에 귀 를 기 울 여 - 라.

너 희 마 음 을 무 디 게 - 하 지 마 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

[제2독서] 1 코린 7,32-35

[복음환호송] 마태 4,16 참조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복음] 마르 1,21ㄴ - 28

[성가안내]

- 입당성가 [455] 주님을 따르려 모여 있는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458] 주의 말씀 듣고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강마지아, 홍데레사,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양윤희 루시아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경련 올릿다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연령희
● 생미사	봉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월 31일	이지훈 아네스	민완준 필립보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2월 7일	백이백 아오스딩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덕미 안젤라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김종선 비비안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

일시 : 2월 7일(주일)

신청 : 성당입구

마감 : 1월 31일(주일)

☺ 이름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올해 설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명절 상차림은 생략하고 분향과 절은 공동체 대표로 신부님께서만 하십니다.

미사 지향은 제대 앞에 예년과 같이 준비 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머리말 33~44 -

주께서 복음성서에서 **“나의 이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운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하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행실로써 당신의 이 거룩한 훈계에 마땅히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악행을 고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날들이 연장되는 것이니,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느님의 인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또 어지신 주께서는 **“나는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고 오히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이미 주의 장막 안에 살게 될 사람에 대해 여쭙어 보았고 살아야 할 계명들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살 자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들에 대한 거룩한 순명 아래서 분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것을 할 수 있기에 너무도 부족하니,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자. 또 우리가 지옥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거름이 있고 육신 생명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현세 생명의 빛으로 다할 수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당장에 달려 실행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학원을 설립해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설립하는 데 거칠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제정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결점을 고치거나 애덕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정한 이치에 맞게 다소 엄격한 점이 있더라도, 즉시 놀래어 좁게 시작하기 마련인 구원의 길에서 도피하지 말아라. 그러면 수도생활과 신앙에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써 하느님의 계명들의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니, 주의 가르침에서 결코 떠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그분의 교훈을 항구히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인내로써 한몫 끼어 그분 나라의 동거인이 되도록 하자. 아멘.

[2021년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인간의 형제애

우리가 타종교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우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릭온.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올드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I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